

가정예배 안내서

10

1995

충현의 만나

사도행전, 로마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

1995

가정에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사도행전, 로마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5년 10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사도행전 서론

누가의 두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누가의 후서라고도 볼 수 있다. 의사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첫번째 책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중심으로, 두번째 책 사도행전은 천상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과 2장, 특히 오순절장인 2장에서 성령의 권능을 잘 말씀하고 있다.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전도내용이 3~7장에 기록되어 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내용은 8장에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인데 9장부터는 땅 끝까지 전도(9~12장:베드로의 선교 중심, 13장 이하:바울의 삼 차례 걸친 선교여행)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도행전의 주요 구절은 8장 1절과 4절, 그리고 28장 31절이다.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8:4)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급하는 사람이 없었더라”(28:31)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한 금할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라는 행동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후서를 기록해야 할 것이다.

1

(주일) 성령을 받았느냐

찬송 / 174장 본문 / 행 19:1-20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19:20)

본문은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에베소는 인구 삼십만 명에 로마제국 지배하의 아시아 지역 수도이며 중요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큰 항만 덕택에 무역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세계 7대 불가사 중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 덕분에 건물을 보려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12사람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세례를 받은 경험이 그의 영적 경험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즉 이들이 참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세례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약속된 메시아를 내다보는 회개의 세레이지만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일과 승리의 부활을 되돌아보는 세례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원했고 바울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의 임재함없이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입니다. 성령님 안에 사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맺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갈 5:22,23). 성령님과 함께 하는 생활은 날마다 힘을 얻고 흥왕하게 됩니다.

▶ 기도 /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19:21)

바울은 에베소교회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포부를 밝히기가 무섭게 찾아온 것은 복음증거를 방해하는 소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동을 통해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의 열매는 세상의 박해와 핍박에 비례해 더욱 생명력있게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은 결국 에베소교회를 당시의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우리도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종교가 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남을 먼저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며, 어떠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기도 /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고 전도하는 생활을 하는 성령의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건강과 신령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20:12)

바울은 드로아에서 머무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이제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주일 밤에 떡을 떼며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말씀을 듣다가 졸아 떨어져 죽었습니다. 실로 드로아교회에 큰 시련을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유두고를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드로아 교인들은 이 사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큰 위로와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줄음이라는 유혹의 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열려진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계락을 경계하며 영육간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략까지도 아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교회를 더욱 강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두고의 소생을 본 많은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자들의 간계를 그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자들이 됩시다.

▶ 기도 /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시며, 오늘 열리는 충현을 립찍을 통해 하나되고 예수사랑을 널리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20:35)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첫째,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고 증거했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으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맡은 자가 어떤 헌신과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바울 자신과 에베소교회의 장래를 말해 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교회에는 이단이 출현하여 배교의 길로 미혹당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고 때문에 니콜라당의 이단사설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축복의 기원과 함께 약한 사람을 도우라며 교회의 사명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바울의 인격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째, 겸손과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복음 전파에 용기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무흠하고 충성스런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섯째, 사심이 없고 사랑과 긍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기도 / 바울의 인격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충현의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21:13)

망망한 바다 한 가운데서 배 한 척이 침몰하였습니다. 모두들 구명 보트에 옮겨 뒀는데 한 선원이 아직 타지 않아 출발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표정으로 안절부절하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드디어 그 선원이 배에 타자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때 그 선원은 꼭 쥐고 있던 주먹을 펴면서 말했습니다. ‘모두들 나침반을 잊고 나왔기에 ……’ 분명히 나침반이 없다면 끝없이 바다 위를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나침반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나침반의 바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항구에 닿을 것입니다. 물결치고 바람부는 망망한 인생의 바다 위에서 오직 나침반의 바늘을 따라 힘껏 노를 저어갈 것을 각오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을 앞두고 본문에서 두 가지 확고한 각오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기로 각오했습니다. 즉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를 위해 고난받으리라고 각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표류해서는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똑바로 항해해야 합니다. 하늘 나라의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로서 바울 사도의 일사각오처럼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어떤 고난도 감내할 것을 각오합니다.

▶ 기도 /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며 사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고하니』(21:19)

본문은 성령의 증거와 선지자들의 증거가 정확히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한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첫째, 끈질긴 공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박해자들을 동원해내는 사탄의 역사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황당한 위증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변명할 새도 없이 흥분한 유대인들에게 휩싸여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셋째, 극도의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바울을 사로잡은 유대인들은 즉시 그를 끌고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위기감과 공포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31, 32).

이런 환난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자신이 세상이 이기지 못할 그리스도인임을 기쁘게 여기며 삽시다. 억울하게 환난당한다고 분해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독하고 극한 상황에서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 기도 /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순종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모든 당회원들에게 더욱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 (22:7)

바울은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극적으로 개입해서 바울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죽음의 자리를 속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헬라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동안의 소동을 그치고 일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간증이 세 번 나옵니다(9장, 22장, 26장).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간증은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 무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체험을 유대인들에게 말해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형제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형들이라고 부를 때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무리들 속에서 자신의 옛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엄한 정통 유대인으로서 믿음의 열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던 자신의 모습이 바로 지금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지 수십 년이 지나고 그동안 많은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동족을 향한 사랑과 과거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는 은혜를 전해줄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 기도 / 나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교회 직원들이 감사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 (22:28)

우리는 바울이 예수를 안 다음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빌3:8).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 자신의 전공인 수학이 세속적인 학문이라 하여 그 대학을 그만 두고 신학교를 가는 청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실제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로마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본문에서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참조, 행 16:37). 또한 로마 시민권 뿐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바리새인 신분도, 그 지식도 어떤 종교인들처럼 도를 위해 삭발하고 세속을 등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한 의미는 더 이상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이 세상 살아가는 데 최고의 가치로 알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그것을 샀고 그래서 바울과 이야기하면서도 그 귀한 것을 네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민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누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버린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신자의 자세입니다.

▶ 기도 /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23:11)

바울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자 천부장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장 거리나 성전 마당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식 재판 장소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과 유대교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오늘날까지 내가 모든 일에 양심에 거리낌없이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바울의 온 삶은 이와 같이 이방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서 다만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은 잘못이나 과실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른 신앙 문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당당함은 재산의 유무, 학식의 유무, 지위의 고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양심에 거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함을 판단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장소에 관계없이, 주변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없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헤드린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바울의 진실을 인정해 주셨고 또한 바울이 그 위험에서 벗어나 로마에서도 지금과 같이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바울처럼 어디에서나 우리의 진실함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 기도 / 믿는 자로서 양심에 따라 생활하고 바울처럼 우리의 진실을 주장할 수 있게 하소서. 천양대원들에게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찬양을 부르도록 성령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마 5:37)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므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 총독의 정식 재판을 받게 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읽은 유대인들은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 승산이 별로 없음을 알기 때문에 테러로써 바울을 없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십파 40명이 테러단을 조직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바울의 생질을 통해 바울에게 알려졌고 바울은 즉시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천부장은 마병까지 동원된 중무장군의 호위를 갖추어 바울을 한밤중에 가이사라 총독에게로 호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부장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사건의 전말을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에서 루시아는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듯 하면서도 자신이 바울을 구출한 것처럼 표현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걸리는 부분에서는 큰 거짓말은 아니나 순서를 살짝 바꾸거나 말을 살짝 바꾸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표현하고 또 그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인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살펴본 말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는 바울의 자세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우리들에게 옳은 것은 언제나 옳고 잘못된 것은 언제나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 관계에 따라 내용을 많이 바꾸든 적게 바꾸든 말을 바꾸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을 바꾼 정도에 관계없이 악입니다.

▶ 기도 / 말에 진실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건립이 잘 진행되게 인도하시고 북방선교의 밑거름으로 삼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24:25)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진 지 5일 후 총독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은 변호사 더도로를 내세워 바울의 죄목을 고발합니다. 이 고소의 말에는 가식과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간의 과정과 유대인들의 고발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변론합니다.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가 내려올 때까지 휴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자유를 주라 명하고 또 자주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총독이 이처럼 바울을 후대하고 자주 만난 것은 바울이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사실을 알고 그에게서 뇌물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총독의 속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벨릭스를 만날 때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합니다.

벨릭스는 그의 형제 필라스 덕분에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총독의 자리에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그는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모으고 또 남의 부인이었던 헤롯 아그립바의 막내 딸 드루실라를 이혼시키고 자신의 세번째 아내로 맞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울은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그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아 영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뿐 아니라 주후 59년 총독직에서 파면되어 로마로 소환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벨릭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 기도 /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맡겨진 학생들을 잘돌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 342장 본문 / 행 25:1-12

『유대인의 율법이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25:8)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총독 베스도는 자기가 통치할 지역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바울에 대하여 고소를 했으며, 바울을 중간에서 죽이기 위해 베스도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재판법은 기소가 공식화된 후에, 통치자가 직접 이해 당사자간의 적절한 고소 이유를 듣고, 심리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이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머무른 후에 유대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재판을 열고 유대인들의 고소와 바울의 변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종교적인 죄(유대인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힘)와 정치적인 죄(가이사의 정권에 도전하고 있음)를 범했다고 송사하였고, 바울은 자신이 전혀 이러한 일에 죄를 범한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로마법의 공정성도 해치지 않아야 했고, 또 유대인들의 눈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심문을 받지 않겠느냐고 물었으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위험을 알고 있는 바울은 가이사에게 호소하여 결국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를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이용하여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 기도 /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환난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주소서. 각 교구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25:22)

바울의 재판이 있는 지 며칠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인사차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아그립바 왕은 헤롯 아그립바 2세를 말하는데, 그는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이며, 헤롯 왕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그의 누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죽었을 때에 그는 겨우 17세이었기 때문에 유대 왕국은 총독 지배 체제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그만 북왕국만을 물려받았으나, 황제가 그에게 성전 관리와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송사가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문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 풍습을 잘 모르는 자신이 판결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유대 풍습에 익숙한 그들에게 바울의 사건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베스도로부터 바울에 대하여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그립바 왕은 직접 바울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기를 원했으며, 베스도는 즉시 황제에게 보낼 때에 설명할 만한 죄목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바울을 신문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관리가 황제에게 보낼 죄목을 찾지 못해 고민할 정도로 무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보내시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 기도 /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도 열심을 다해 전도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26:8)

본문에서는 베스도의 말이 끝나자, 아그립바 왕은 죄인으로 끌려온 바울에게 자신에 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1-3).

바울은 변명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쁘다면서 관대히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젊은 시절에 관한 이야기(4-5) 둘째,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야기(6-12) 셋째, 주님을 만나게 된 사건과,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은 이야기(13-18) 넷째, 다메섹에서 받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일과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게 된 일(19-21)들을 다 이야기한 후 바울은 자신이 송사받는 이유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 세상의 왕들에게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서 진리를 전하는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기 전의 일과 믿게 된 과정, 그리고 믿은 후의 일에 대하여 간증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살아 있는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에게 주님을 만난 살아 있는 간증을 주시고,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모든 장애인들과 환자들이 주님 안에서 삶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 (26:29)

유대인의 종교와 성경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베스도는 바울이 메시아의 수난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많은 학문으로 인해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차린 말을 하고 있다면서 왕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을 것이며, 선지자를 믿는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24-27). 이 말을 듣고 있던 아그립바 왕은 바울이 적은 말로 자기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빈정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히 자기를 재판하는 왕을 향하여 자신은 아그립바 왕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28,29).

이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무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아그립바는 베스도에게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더라면 놓아줄 수 있을 뻔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30-32). 심문하는 사람들 모두는 바울이 무죄임을 인정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결박당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왕들과 통치자들을 향하여 담대히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원합니다.”

▶ 기도 /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한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남복이 복음으로 하나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27:25)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가도록 작정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은 바울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기나긴 재판의 과정을 통해 바울이 로마로 향할 수 있도록 섭리해오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것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의 일행을 싣고가는 배는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미항에 이르렀으며(8), 그곳에서 바울은 계절상으로 행선하기가 어려운 때임을 지적하면서 기다릴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대로 항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배는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의 말대로 하물과 배와 생명에 큰 타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막한 암흑과 같은 시기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무죄를 증명해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해주시는 분이란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험통하지만, 인간의 지혜나 경험을 믿고서 그 말씀을 거역하면 큰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 기도 /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시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의료선교인 지원과 현지인 목회자 양성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27:31)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로마로 이송되어 가던 도중,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무서운 폭풍에 휘말려 파선의 위기에 직면한 때의 기록입니다. 그 배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죄수들과 그들을 감시하던 로마 병사들, 그리고 그 배를 운행하는 여러 선원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릇된 행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폭풍우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공들입니다.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배를 포기하고 몰래 도망치려 한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망각하고 승객들의 생명은 전혀 안중에 없이 자신들의 목숨만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또 로마병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자연의 위협에 완전히 넋을 잃고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영혼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육신적인 필요까지 공급해주었습니다. 더욱이 불안한 마음에 그릇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단호히 막아냄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도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담대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위기를 당할 때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낮게 하매』(28:8)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구원함을 받아 잠시 머물게 되었던 ‘멜리데’라는 섬에서의 기록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친 파도 속에서 시달리던 바울 일행은 이제 다시 로마의 배가 그들을 태우러 오기까지 그 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본래 멜리데(오늘날의 말타)라는 섬은 로마의 대적이었던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았던 곳이어서 그 섬의 원주민들은 로마의 군대를 보고 바울의 일행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그 섬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은 아무도 바울 사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게 자신의 손을 물리고도 아무런 이상없이 건재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높이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울은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후한 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주인의 부친이 앓고 있던 오랜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는 능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고 바울은 기도와 안수함으로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갈 때에는 한 죄수에 불과하였지만 바울이 그 섬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후한 대접과 풍족한 선물을 받으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도 복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신실하고 능력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추진중인 중합선교관 건립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28:23)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도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로마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으나 다른 죄수들과 달리 자기를 지키는 군사와 함께 따로 머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몇몇 유력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핍박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어 오기까지 한 바울이 오히려 로마에 들어와서는 더욱 힘있게 복음의 사역을 전개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립될 세상적인 이스라엘 왕국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이 탄생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힘있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되심을 가르쳤습니다. 정치적이며 지상적인 메시아만을 갈망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는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 중에서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가 추진중인 성지연구소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1:16)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안부를 물으면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그로 인해 나타나게 된 영적인 권위의 근거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전파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다해 경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소유하게 된 권력이나 재물, 혹은 지식이나 명예에 대해서 거의 맹목적인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교만함이 점차로 심화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 만족의 가치외에는 다른 어떠한 진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세속적인 혜택을 누리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서 참 생명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능력만이 참된 생명의 기쁨을 나누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복음 사역에 앞장서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1:21)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정죄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품성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들은 의롭고도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천지만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돌리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과의 관계만을 지속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과거에는 모두 이렇게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버리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 기도 /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홍콩)가 사역하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2:1)

사도 바울은 앞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고의로 거부하고, 비진리와 우상 숭배, 그리고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야기의 초점을 남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도덕주의자들이나, 종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진리와 공의로 시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5,6,11)

옛날에 나단 선지자는 남을 정죄하고 자기의 죄는 알지 못하는 다윗 왕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यो!”(삼하 12:1-10)라고 소리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정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남을 판단하면서 여러분도 그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 기도 / 우리가 외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소서.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을 통해 모슬렘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2:28)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양심이란 법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행위는 하면 안되고, 어떠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잃은 인간들을 위해 유대인들을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잃어버린 우리의 양심의 법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방향과 지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경과 같이 어두워진 이방인들의 양심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회당에서 십계명을 가르치면서도 도적질하고, 간음하며, 우상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는 율법이 없이도 비교적 양심에 따라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혈통으로 난 외형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며, 중심으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소서.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의료선교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3:10-12)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선택받은 표시로 할례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할례의 언약대로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큰 유익을 주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나을 것이 없으며, 할례로 선택받은 민족의 유익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남이 받지 못한 율법을 받았고, 언약으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해주실 것임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좋단 말이나?”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역시 이 죄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기도 /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김형선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 (3:24)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일반인, 도덕주의자, 종교인, 유대인, 그리고 사도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절망적인 시점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며,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타락한 인류들을 위하여,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 얻는 방법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으며,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행위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로서 값없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그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소서.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때를 따라 주님의 복음을 더욱 증거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4:8)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본문에서 두 가지 실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어떠한 일에 증인을 내세울 때에는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율법의 규정대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두 명의 증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이 둘의 증언은 이스라엘 전체의 증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창 15:6)의 본문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지 않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다윗도 자신의 살인죄로 인해 진액이 쇠하며, 뼈 마디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 기쁨을 노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시 32:1,2)

성도 여러분!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인정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가 없어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 기도 / 우리도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게 하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가 전개하는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4:21)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18). 그리고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도 확신하였습니다(21).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신 것도 바로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기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이 약속을 붙잡고 늘 승리하게 하소서.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섬기는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5:8)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과 소망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가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할 수 있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계속되어져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축복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떠나서는 어떠한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십자가에서 더욱 분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랑이 더욱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이루어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없이 이 모든 사랑의 회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값없이 얻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생명을 얻는 구원이었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아무 공로없는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평생토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하소서. 모든 공무원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5:17)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생들에게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 왔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중 아무도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죄인들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한 인생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온 세상과 인류 위에 왕노릇 하여 모두가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같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과 인생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망을 지배하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같은 축복에 젖어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크고 두려운 사망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줄 누군가를 간절하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20). 그리고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이 땅의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사망에 눌린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죄악된 요소를 모두 제거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사회로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6:14)

은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과 연합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말씀합니다(3, 4).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을 때 얻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처럼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에게 눌리는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은혜 아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 자유하십시오. 죄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하지도 마십시오. 죄책으로 인해 마음을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힘 입어서 죄를 물리치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 기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돕고 있는 모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성령충만하여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6:22)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영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생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죄에게 순종한다면, 그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끄러움과 고통이었습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근본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죄에 빠져 수렁에서 헤매이던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건짐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거룩한 대열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제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마지막은 곧 영생입니다. 이제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발을 힘차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하나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10월에도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수봉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44 과

성숙한 증인의 표식

말씀 : 빌립보서 1:12-19

찬송 : 270장

요점 :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 증인의 생활을 참 잘하지만, 어떤 성도는 너무 부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그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시다.

첫째로 그는 감옥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중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어찌 그 갇힌 환경에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답답한 환경이요 부자유스런 환경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 환경으로 인도하신 것으로 깨닫고 그곳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영생복락의 천국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였고, 기회 닿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간수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갇힌 자가 저렇게도 자유로울까,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할 자가 어찌 저렇게 평안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들에겐 이전에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부활의 힘입니다. 우리도 당한 환경이 무엇이든지간에 그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해하고 중인 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바울 사도는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여 저들이 열심으로 중인 노릇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이 갇혔을 때 어떤 성도는 바울을 시기하는 심정으로, 바울보다 더 증거를 많이 하는 실적을 알리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바울이 갇혔으니 이거 큰일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파가 약화될까봐 착한 심정으로 더욱 열심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 가지를 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복음의 확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세가 저들에게 다시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모두 더욱 겸손히 충성스럽게 복음의 증인 노릇을 하였을 것입니다.

결 론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건 교만도 말고 실망도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용하여 복음의 증인 노릇을 충성스럽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바울 사도는 ()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2.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까? ()
3. 바울이 갇혔을 때 바깥에서는 두 가지 모습의 복음 증거가 있었습니다.
① ()심정으로 증거함
② ()심정으로 증거함
4.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증인 노릇은 무엇입니까? ()

제 45 과

위대한 기독교 신자의 표식

말 씀 : 빌립보서 1장 20-26절

찬 송 : 71장

요 점 : 바울은 갇힌 몸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답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목표를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전진했습니다.
과연 성도의 자세는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서 론

한국 땅에도 천만이 넘는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신자답게 살고 있는 현실입니까? 수많은 사고들과 성도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나님과 민족 앞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위대한, 진실한 기독교 신자의 표식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본 론

첫째,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20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생의 목표를 바로 정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 표준을 바로 정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 자신을 바치는 헌신의 삶입니다(21절).

바울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과 시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이신 예수님께 바칠 줄 아는 성도야말로 훌륭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겸손하게 바치고, 주를 위해 바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희생적으로 섬기는 삶입니다(24-26절).

바울은 갇혀서 그대로 죽음으로 갈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풀려나 다시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이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다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죽음 보다는 바울의 풀려남을 원했습니다. 바울도 풀려나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풀려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며 복음 전하며 그로 인해 그들이 기뻐할 것을 알기 때문에, 풀려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사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결 론

우리의 삶도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오로지 예수님을 높히며,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소원은 옆에 있는 성도를 구체적으로 섬기는 희생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우리의 언행심사는 ()을 높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 ()하게 바쳐야 합니다.
3.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섬기고, 그로 인해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나기를 원했습니다.
4. 나는 과연 주변의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말해봅시다.

제 46 과

위대한 기독교 교회의 표식

말 씀 : 빌립보서 1장 27-30절

찬 송 : 386장

요 점 : 교회는 교회답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가지로 살펴봅시다.

서 론

교회는 온 세상을 진리로 비추는 등대이며 빛입니다. 요즈음엔 교회의 모습이 환하지 못하고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합니까?

본 론

첫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27절).

군인은 군인다운 자세와 생활을 가지며, 의사는 의사다운 자세를 가집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에게는 성도에 합당한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천

국시민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천국의 지점 같은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 사업 하나에 이르기까지 복음에 어울리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27절).

견고하게 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튼튼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약해지고 맙니다.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으면 마귀에게 넘어지게 됩니다. 저절로 쉽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되기를 노력해야 이룩되지 별로 관심없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복음에 협력하는 것입니다(27절).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고, 물질을 합하고, 시간을 합하여 협력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복음 전파에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물질도 드리지 않고, 되는 대로 해나가면 복음 전파는 제대로 되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에 모든 협력을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넷째,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28-30절).

하나님의 교회는 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중에도 성도와 교회는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결 론

지금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파를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합쳐 힘차게 나아갑시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교회와 성도들은 ()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2. 건고하게 서고 약하지 아니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가 되어야 합니다.
3. 복음 전파에 물질, 시간, 몸을 드려 힘껏 ()해야 합니다.
4. 우리는 환난과 핍박중에도 오직 ()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5. 우리 구역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의논하고 기도합니다.

제 47 과

모범적인 삶을 살자

말 씀 : 빌립보서 2장 1-4절

찬 송 : 507장

요 점 :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이웃에게까지 그 충만함이 전달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서 론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으며,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때 빛이 되며 소금이 되는지 살펴보시다.

본 론

첫째, 위로하는 삶입니다(1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웃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위로 대신에 상처

를 주고 흠을 내는 언행이라면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시겠습니까?

둘째,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1절).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기는 어려워합니다. 성도들은 기꺼이 사랑을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최고인 사랑, 거져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나타냅니다.

셋째,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1절).

혼자서 고독하게 쓸쓸하게 외로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모임 속에서 대장 노릇만 하고 나만 내세우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늘 구역에서나 전도회에서나 함께 기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불쌍히 여기며 사는 삶입니다(1절).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웃과 형제 자매를 냉정히 매섭게 대하지 말고 자비롭게 대하며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겸손히 사는 삶입니다(3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은 남을 인정하고 대접하고 높혀주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천한 말구유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서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 자신도 돌아보면서 타인도 돌아보는 삶입니다(4절).

자기 일만 잘하고 끝나면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또 자기 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웃의 일만 돌아보는 것도 부족한 일입니다. 말씀처럼 자신도 돌아보고 아울러 이웃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범적인 성도

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도 충만하고, 그 충만함이 이웃에게 흘러넘쳐서 전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 론

이 땅에 오시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성도는 이웃을 ()하고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구역에서 해야 할 위로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2. 성도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가는 ()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역이 나누어야 할 교제는 무엇입니까?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 순서

찬 송	 다 같 이
성경봉독	 사 회 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 이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